

도로분야 당면 문제점 도출 및 향후 도로정책혁신 방향설정을 위한 「제1차 민·관 도로혁신 연찬회」 개최



건설교통부 주최, 한국도로교통협회 주관의 제 1회 민관 도로혁신 연찬회가 국내건설업체, 대표자 및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의 도로분야와 관련한 주요 인사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1일 10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찬회는 건설교통부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 국내 건설사와 산하 관리감독기관들로부터 현장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하여 당면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로정책의 혁신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도로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박상규 건교부 혁신정책조정관이 건교부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 1세션에서 박상규 건설교통부 혁신정책조정관은 '건설교통부 혁신계획 및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박상규 혁신정책조정관은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및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 2005년 까지가 혁신기반의 구축 및 실행한 기간이었다면 2006년도는 공무원 사회에 혁신생활화 문화의 정착을 위한 '혁신 레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2006년 목표를 '건설교통 초강국 2010'으로 설정하고 혁신 성과의 가시화 및 3C 혁신문화 정착, 무결점 고품질 정책의 창출, 고객만족도의 획기적제고 등 4대전략을 마련하고 혁신수준, 혁신순위,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등 목표 달성치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전방위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이원용 경기도 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은 '관행을 탈피한 공사기간 단축'을 주제로 경기도 업무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용 시설관리 팀장은 '비용절감은 곧 공기단축과 비례'한다고 강조하고, 설계와 토지보상 동시추진 및 자재조기 구입 방안 등 공사비절감 사례를 비롯, 공기단축을 위한



이원영 경기도시설관리팀장

현장 관리방안, 개선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토지보상 추이결과 2004년부터 도로용지보상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경우 공기가 1년 연장될 경우 약 200억원, 4년이면 8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추가적 편익창출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공사기간 중 최신공법을 적용 설계변경 사례', '용지보상 조기시행 및 사업 착수시기 조정사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 등 예산절감 및 다수의 업무혁신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손종철 건교부 서기관의 강원도 수해원인 및 향후대책을 설명



이해경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회장
(주)다산컨설팅사장

3번째 발표자인 (주)다산컨설팅 이혜경 사장은 '설계-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도로설계 절차의 확립 및 턴키-대안제도의 적극활용,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의 현실화, 감리제도 개선방안 등 각 부문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혜경 사장은 턴키-대안제도 적극 도입 부문에서 선진국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발주청의 애로 및 평가방법, 낙찰율 등을 이유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턴키-대안제도의 장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설계-시공사간의 연계성 강화, 공사기간 준수, 공사비 절감 등을 열거했다.

또 턴키-대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설계변경 시 형평성 결여, 저가 설계비 보상, 대기업 위주의 수주 편중 등 불합리한 관례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표는 건설교통부도로건설팀 손종철 서기관의 '강원도 수해원인 및 향후대책' 관한 발표로 이어졌다. 주 내용은 인제-양양, 횡성-평창-정선 인근지역의 주요 국도구간의 수해원인과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유형별 피해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금번 조사결과 강원도 수해원인은, 지난 7월14일 제 4호 태풍 '빌리스'가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으로 유입되어,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결과로는 우리나라는 급경사의 지형과, 지질밀도, 침엽수가 주를 이룬 식생 등의 특성 때문에 산사태에 매우 취약하고 토층이 0.5~2m로 얇아 집중호우시 쉽게 붕괴되며, 산사태 취약부에 대한 사면안정이 미흡하고 토석, 나뭇가지 등 유송잡물의 차단시설이 부족해 산사태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천 등 배수시설 파손은 제방이 홍수위보다 낮거나 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통수단면이 부족해 하천이 범람한 조사되었으며, 물이 직접 부딪치는 수중부나 협곡의 빠른 유속에 의해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들이 유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손종철 서기관은 피해지역의 도로 및 구조물들이 대개 1980년대 안전대책이 없이 건설된 도로임을 감안 2003년 8월 강화된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것과 산악지대의 도로, 구조물 건설시 별도기

준을 마련 적용하며, 환경친화적인 복구방안 및 기존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후부터 속개된 제2세션에서는 대림산업(주) 김주화 부사장이 “민간투자 제도개선 Agenda” 를, 건설교통부 송기섭 도로정책팀장이 “한국의 도로정책과 혁신방안” 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 1회 도로혁신 연찬회는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도로분야의 현안문제점에 대해 기업대표자와 정부간의 질의-응답시간을 끝으로 종료됐다.



(좌)김주화 대림산업(주)부사장
(우)송기섭 건교부도로정책팀장



건교부 직원이기업대표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손학래 한국도로협회회장이
중식시간을 이용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도로혁신 사례 발표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발표 내용	발 표 자
9.1(금)	10:30~10:50	건교부 혁신계획 및 성과	박상규 건교부혁신정책조정관
	10:50~11:10	경기도 업무혁신 사례	이원영 경기도건설본부시설관리팀장
	11:10~11:20	질의 - 응답	
	11:20~11:30	휴식	
	11:30~11:50	설계-감리제도 개선방안	이해경 (주)다산컨설팅 사장
	11:50~12:10	강원도 수해원인 및 향후 대책	손종철 건교부도로건설팀 서기관
	12:10~12:30	질의응답	
	12:30~13:40	중식	
	13:40~14:15	민간투자제도개선 Agenda	김주화 대림산업(주)부사장
	14:15~15:00	한국도로정책과 혁신방안	송기섭 건교부 도로정책팀장
	15:00~15:30	도로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점 토의및 질의응답	답변자 :송기섭 도로정책팀장의 1명

■ 각계대표 향후 연찬회 발전방향 모색 별도회의 개최

향후 연찬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각계의 대표자 회의가 2층 아카시아 홀에서 민·관, 지자체, 관련협회, 기업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권진봉 건설교통부도로기획관의 주재로 개최됐다.

토의결과, 금번 도로혁신 연찬회를 더욱 발전시켜 지속 개최하여 권위있는 국제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중지를 모으고 이를 위한 6개항의 기본방향을 설정,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각계대표들이 연찬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자 명단

권진봉 건교부도로기획관 ▷ 임경국 건교부도로시설국장 ▷ 김방훈 제주도도시건설본부장 ▷ 오기호 강원도건설방재국장 ▷ 조건창 한국도로교통협회 상근부회장 ▷ 북기찬 한국도로공사기술본부장 ▷ 이우영 현대산업개발(주)부사장 ▷ 오기식 코오롱건설(주) 부사장 ▷ 이두화(주)삼보기술단사장 ▷ 이해경 (주)다산컨설팅단트사장 ▷ 김덕곤 (주)천일기술단사장 (이상 11명)

»»» 토의결과 및 요점 «««

- 제 1회 도로혁신 연찬회를 시작으로 향후 내실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권위있는 국제포럼으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 도로분야와 직접 관련된 기관의 참여 외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감사원, 정치권, 언론, 학회, 평가원(건기평) 등의 참여를 유도, 논리적인 분석과 계량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분야의 발전을 꾀한다
- 주최기관은 건설교통부, 행사주관은 한국도로교통협회가 하되 공식명칭과 개최주기, 주제결정 및 행사기금 마련은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단 동 행사는 “도로의 날” 행사와 별개로 추진한다.
- 연찬회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중토론을 통한 소정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 도로-교통 분야의 현안문제만을 다룰 경우 행사자체가 단기로 끝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의 TRB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포럼에 참석하는 민-관 모두의 토론 결과는 상호 Win-Win 할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한다.